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황금같은 기회 반드시 잡아라”

김영록지사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AI·에너지수도 실현 등 도정방향 제시
인구 50만 'AI 에너지 미래도시' 추진
“세계 첨단산업 중심 더 큰 도약”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회를 맞이했다”며 “새 정부가 전남을 전폭 지원하고 세계가 전남을 주목하는 이 황금같은 순간을 반드시 잡아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OK! 지금은 전남시대' 그 위대한 도전을 한층 가속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내년 도정 방향으로 ▲AI·에너지수도 실현 ▲기업친화도시 ▲K·관광시대 선도 ▲미래형 농수축산업 메카 ▲SOC 르네상스 ▲도민이 주인인 행복공동체 ▲지방소멸 위기 극복·지역균형발전 핵심어젠다 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 인구 50만의 전남 AI 에너지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전국 최초 RE100 산단과 국가AI컴퓨팅센터, 글로벌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오픈AI,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과 첨단산업이 함께하는 AI 혁신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2035년까지 전남 동·서부 30GW 규모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등의 추진 방향도 내놓았다.

이어 김 지사는 “여수·광양만권에 RE100 미래첨단 국가산단을 조성해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동부권에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해 여수·광양만권 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차세대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 특화산단으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K·관광시대 선도를 위해 2035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이순신 호국문화 관광벨트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본격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 설립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미래형 농수축산업의 경우 AI 농생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 AI 기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 국립 김산업진흥원·마른김 대규모 물류단지 구축 등을 추진한다.

SOC 분야에서는 영암·광주 초고속도로와 연계한 영암·진도 고속도로,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여수·순천 고속도로 등 33조4천1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망을 국가계획에 담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북아 관문 거점공항으로 키우는 한편,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핵심 거점항만으로,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항만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2027년 개교, 인구대전환 프로젝트, 월 1천만 생활인구 유치, 5년간 100억원의 전남 청년 희망기금 조성,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특구에 지정되고, 세계적인 AI 기업과 국내 첨단산업들이 몰려오는 글로벌 전남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는 더 큰 도약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성황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전남도 장애인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민주당 중심 안방정치 혁신 ‘정치적 메기’ 되겠다”

조국혁신당, 전남서 전대 첫 일정

조국 “도민 중심 민생정치로 혁신”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치적 ‘메기’가 돼 전남 정치를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 첫 지역 일정으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중심의 안방 정치를 도민 중심 민생정치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참여자의 경쟁력까지 높여주는 ‘메기 효과’에 빛대 혁신당의 지방선거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0명으로,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들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광주·전남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0이라고 본다”며 “국민의 힘 후보를 0으로 만든다는 전략적 목표로 광주·전남에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겠다”고 지방선거 전략을 설명했다.

조 전 위원장은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현 양당 체제를 “그들만의 리그, 양당의 적대적 공



존”이라며 “이것은 김대중 정신이 아니다.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조 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사용) 미래첨단 국가 산업단지, 국립의대 신설 등을 거론하며 “전남 핵심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민주당 중심의 호남 정치 체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장식 의원은 “민주당 웃을 입었다는 이유로 호남 정치 운동장을 독점하게 되서는 호남 민주주의 발전은 어렵다”며 “호남 정치 혁신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혁신호(號)의 수석 항해사가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임형택 익산시공동지역위원장은 “경쟁과 견제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단일함과 정체뿐”이라며 “전남에서부터 혁신의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의원 역시 “호남에서 민주당 독재 체제를 타파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동조합위원장도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가장 선명한 정책으로 전남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강수훈 “국토부, 무안공항 정상화 로드맵 제시를”

광주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촉구도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호남권 항공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1·사진)은 17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안공항 폐쇄로 호남의 하늘길은 사실상 완전히 끊겼다”며 “국토부는 즉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안공항 정상화 시점, 호남의 이동권 보완 대책, 국제선 대체 계획 등 어느 하나 준비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으로 광주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균형 발전적인 조치”라며 “무엇보다 무안공항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장성군 Jangseong

천년고찰 백양사(쌍계루)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